



마케팅부

(주)제일화학

□ 취재 / 함경숙 기자

현대사회의 산업에 있어서 이제는 제품생산 보다는 생산된 제품을 얼마만큼 판매하여 이윤을 극대화 시키느냐에 따라 그 진가가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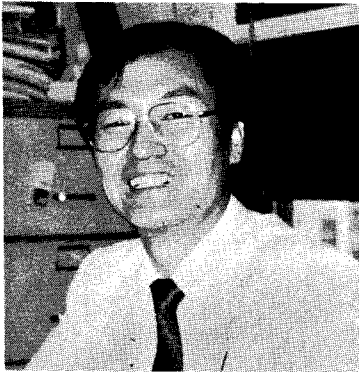
우월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철저한 시장조사, 치밀한 판매전략, 적절한 광고 등이 조화를 이뤄 중요한 요소로서 상품판매에 직접적으로 작용될 때 일단 마케팅면에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축산업계에도 다른 첨단산업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제품생산에만 주력하던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 다른 산업에서 도입, 추진하고 있는 뛰어난 판매전략을 세워 가며 정통 마케팅을 추구하고자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는 업체가 등장했는데 바로 (주)제일화학(대표 서정범)이 그 주인공이다.

1977년 설립, 지난 1월 1일 법인으로 전환하여 창립 12주년을 맞이했는데 양축가 뿐만아니라 축산

'More Idea, Better Business'를 위해 정통 마케팅 실현을 위한 힘찬 전진의 닳을 올리고 있는 배





• 동희조 차장

업계에서는 '젊고 신선한 이미지'로 무한한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는 회사'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다지 길지 않은 연륜에 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체로 그 자리를 굳혀 가며 힘찬 전진의 닳을 올리고 향해를 계속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재와 같은 당당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81년 마케팅부가 신설되면서부터.

'No Idea, No Business',

'More Idea, Better Business'를 마음의 중심에 심어 놓고 내일을 향해 부지런히 뛰고 있는 마케팅부.

'주먹구구식 마케팅'이 아닌 '정통 마케팅 추구'를 목표로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로 자기변신을 위해 몰두하고 있는 모습은 총매출액이 36억9천만원이었던 88년에 비해 올해에는 50억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탄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매년 20% 이상의 매출액 성장을 목표로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

이 되어 한국 축산업의 중흥을 위해, 양축농가의 수익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총 80여가지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데 양계부문에서는 파리유충구제제인 「라바텍스」의 경우 제일화학=라바텍스라는 공식이 성립될 정도로 그 공헌도가 대단하며 호흡기질병 예방·치료제인 「후라시나」도 호평받고 있는 제품이다.

특히 소의 종합구충제인 「발바진」은 제일화학을 업계와 양축농



• 김혜령 대리

가에게 회사명성을 떨칠수 있도록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했던 그야말로 원조(?).

마케팅부는 동희조 차장을 중심으로 김혜령 대리, 강용문 계장, 김장동 계장, 박미향, 김은희 등 여섯명이 제각기 맡은 고유업무를 처리해 내며 멋진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동희조 차장.

수의학을 전공한 그는 각 PM들이 맡고 있는 제품 판촉을 도

와주며 새로운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적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맥을 짚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실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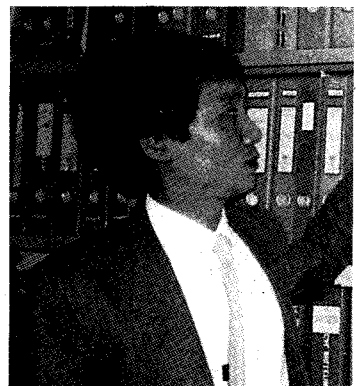
수의학을 공부할수록 그 깊이에 재미를 느껴 졸업후 줄곧 약품업계에서 학술·기획·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부하는 마케팅부'에서 움직이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업부와 마케팅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보다 많은, 보다 좋은 제품생산과 판매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대장(?)이다.

김혜령 대리.

낙농학을 전공한 그녀는 축산업계에서 열손가락 안에 드는 슈퍼우먼 중의 한사람으로 제일화학에 들어오면 제일, 즉 최고가 될 수 있을것 같아서 인연을 맺었다.

'파리'와 인연을 맺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맡은 제품이 성공적으로 판매될 때와 비전공인 광고를 열심히 만들어 괜찮다는 평을 들었을 때가 흐뭇하다.



• 강용문 계장

현재의 희망은 우리나라 젓소에 맞는 「카우톤 블록」이 널리 공급 되어 생산성을 높이는 일과 양계용 최신 합성항균제인 「로메킬」이 질병퇴치에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강용문 계장.

수의학을 전공한 그가 현재 맡고 있는 일은 주사제 및 항균제 PM으로 양축가에 대한 기술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홍보 및 판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4월말부터 5월말까지 양계협회와 부산, 대구, 홍성, 경주 등 네 곳에서 산란계의 위생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학교시절 축산에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했으나 군대에서 개의 질병 치료를 해 주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매력을 느꼈다는 그는 '라바텍스 박사'라는 별명을 지닐 정도로 이젠 '도사'가 되었다고 주위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 김장동 계장

김장동 계장.

사료영양학을 전공, 사료첨가제 PM을 맡고 있는 그는 제일화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사했다고 당당히 입사동기를 밝힌다.

회사 분위기 조성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인 그는 '빠에로'라는 별명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성격의 소유자로 사료첨가제 관측방안 연구 및 신제품 개발업무를 맡고 있다.

사료첨가제가 전체 외형의 23%를 차지했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다는 그는 얼떨결(?)에 인연을



• 박미향

맺은 축산업계에서 아니 동물약품 분야에서 제1인자가 되고 싶다는 아무진 꿈을 지닌 총각사원이다.

각종 산업분야에서 컴퓨터를 도입, 활용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제일화학도 각종 축산기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 응용하고 있는데 박미향양

이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마케팅부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윤희유 역할을 해 내고 있는 막내동이 김은희양.

이렇듯 제각기 다른 성격의 업



• 김은희

무를 처리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일에 '하나'가 되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마케팅 부.

상호 '제일'에서 엿볼 수 있듯이 '으뜸'이 되기 위해 다른 회사에 비해, 다른 부서에 비해 더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이다.

마케팅부를 들어서면 어지럽게 널려있는 각종 외국서적, 자료 등이 양축가를 위해,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살아있는 생생한 자료로 그 기능을 확실히 발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며 다시 한번 이 단어가 떠올랐다.

More Idea, Better Business

양계